

OLED 맞대결... 삼성 '얇고 밝게' vs LG '크고 유연하게'

SID2025서 신기술 총출동

삼성 세계 첫 무편광 OLED 'LEAD' DIA 7번째 수상... 휘도·전력효율 ↑ QD 기반 차세대 EL 기술도 전시

LG '필러투필러' 車 전면 디플 공개 스트레처블·슬라이더블 등 총출동 SPM 등 미래차 맞춤형 기술 존재감

삼성디스플레이와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2025'에 참가해 차세대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리는 SID 2025에 참가한다. SID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과 연구진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올해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 중국 BOE, TCL, 일본 샤프 등 글로벌 주요 패널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무편광판 OLED 기술 'LEAD'를 공개한다. 기존 OLED 패널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던 편광판을 없애고도 외부 빛 반사를 막아 화면 밝기는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인 것이



삼성디스플레이 모델들이 QD-올레드 제품과 함께 새로운 BI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특징이다. 패널 두께도 기존 대비 20% 얇아져 휴대성과 디자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기술로 올해의 디스플레이 상(DIA)을 받는다. DIA는 SID가 한 해 동안 출시된 제품 중 최고의 디스플레이에 수여하는 상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이 7번째 수상이다. SID는 학회 매거진을 통해 "휘도를 개선하고 야외 시인성을 높였으며 동시에 패널 두께도 20% 더 얇게 만들었다"고 호평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또 퀀텀닷(QD)을 활용한 '전계발광 퀀텀닷(EL-QD) 기술도 선보인다. 초미세 반도체 입자

인 QD를 활용해 적녹청(RGB) 픽셀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정밀한 색상 표현과 높은 내구성이 강점이다.

LG디스플레이는 '신기술을 통한 사업 확대'를 주제로, 미래차에 특화된 차량용 OLED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대표 제품은 57인치 '필러투필러' 디스플레이로,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 단일 차량용 디스플레이다. 주행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하나의 화면에 담는다.

화면이 최대 50%까지 늘어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평소엔 평면 상태지만 필요시 볼록하게 튀어나와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차량용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소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물리 버튼처럼 작동한다. 차량 실내 천장에 말아 넣었다가 필요할 때 아래로 펼쳐는 '슬라이더블 OLED'와 조수석에서만 콘텐츠를 보이도록 시야각을 조절하는 '스위처블 프라이버시 모드(SPM)' 기술도 함께 공개된다. 이들 디스플레이는 혹한(-40도)부터 고온(+85도)까지 견디는 내구성을 갖췄다.

LG디스플레이는 2019년 세계 최초로 탠덤(Tandem) OLED를 상용화한 데 이어, 현재는 P-OLED, LTPS LCD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신차 효과로 실적 선방 내수·해외 모두 판매 '쑥'

4월 완성차 판매 2.4% 증가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국의 극단적 관세장벽과 글로벌 소비 심리 위축에도 시장 다변화와 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며 견조한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와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등 고부가가치 전략 차종의 인기가 눈길을 끈다.

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KGM)는 지난 4월 국내의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68만8778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국내 판매량은 8.1% 증가한 12만8719대, 해외 판매는 1.2% 늘어난 56만59대다.

이같은 성장세는 SUV와 친환경 모델이 이끌었다. 현대차와 기아는 팰리세이드(6662대), 쏘렌토(8796대), 스포티지(4만7737대) 등 전략 차종을 중심으로 내수와 수출에서 판매량이 증가했고,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레오스(4375대) 판매 돌풍으로 내수 시장에서 2배 이상 늘어나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다만 현대차·기아와 중견 3사의 희비는 엇갈렸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35만3338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는 5.9% 늘어난 6만7510대, 해외 판매는 1.1% 늘어난 28만5828대다. 기아는 국내 5만1085대, 해외 22만3352대를 합해 총 27만4437대를 판매했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 탈탄소 선박·글로벌 물류 통합 도전

머스크와 전방위 협력 체결 메탄올 추진선 기술 본격 적용 자율운항·AI 운항 효과 검증 글로벌 물류망 공동 활용 확대

HD현대가 최근세계적인 해운·물류 기업인 A.P. 몰러 머스크(머스크)와 '탈탄소 해운 기술 발전 및 글로벌 통합 물류 서비스 분야의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HD현대는 지난 2021년부터 머스크로부터 총 19척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 지난해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등 조선·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머스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번 MOU를 통해 머스크는 HD현대의 최첨단 선박 탈탄소 기술을 자사



6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로버트 머스크 우글라 A.P. 몰러 머스크 의장이 '탈탄소 해운 기술 발전 및 글로벌 통합 물류 서비스 분야의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HD현대

의 선단에 적용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HD현대는 머스크의 통합 물류 서비스를 계열사에 확대 적용해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사는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머스크 컨테이너선에 HD현대 선박 자율운항 전문기업인 아비커스(Avikus)의 항해 최적화 솔루션 '하이나스

(HiNAS)'와 HD현대마린솔루션의 AI 기반 탈탄소·경제운항 솔루션 '오션와이즈(OCEANWISE)'를 적용하고 6개월간의 시범 운항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항해 최적화 솔루션의 연료 절감 및 탄소 감축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엔진의 효율 최적화, 컨테이너 선 화물 적재량 증대, 이중연료 추진 개

조 등 선박 탈탄소 개조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최근 설립된 HD하이드로젠과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의 실현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머스크와의 협력은 탈탄소 해운 기술과 통합 물류망을 결합해 글로벌 물류 시장에 혁신을 불러오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안전성과 탄소배출 저감, 최적의 효율성 등이 모두 갖춰진 지속가능한 해양 물류망의 구축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발 빠르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 로버트 머스크 우글라 의장은 "HD현대의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과 머스크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만나 시너지를 창출, 지속가능한 해운과 물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G 가전, 美·유럽서 성능 최고 평가

냉장고·세탁기 해외 소비자평가 1위

LG전자의 냉장고와 세탁기가 올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소비자매체 평가에서 잇달아 1위에 올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냉장고는 미국·이탈리아·포르투갈·스웨덴 등 7개국 총 12건의 소비자 평가에서, 세탁기는 6개국 8건 평가에서 최상위권

에 올랐다.

냉장고는 프렌치도어, 상냉장 하냉동, 양문형 등 다양한 제품군이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는 프렌치도어 냉장고의 온도 조절과 균일성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며 1위로 선정했다. 스웨덴 '라드앤론' 역시 LG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를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에서 높

이 평가하며 공동 1위로 뽑았다.

세탁기 부문에서도 LG 제품이 압도적이었다. 미국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최고의 통돌이 세탁기' 순위에서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LG 제품이 차지했다. 올해 4월 발표된 '가장 신뢰받는 세탁기 브랜드' 조사에서도 드럼·통돌이·소형 세탁기 전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유럽과 호주 소비자매체 평가에서 LG 세탁기는 최상위권을 석권했다. 포르투갈 '데코 프로테스트' 드럼세탁기

평가에서 1~5위에 모두 LG 제품이 올랐고, 호주 '초이스'에서도 통돌이 세탁기가 성능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미국 뉴욕타임즈의 리뷰매체 '와이어커터'는 상냉장 하냉동 및 프렌치도어 냉장고를 각각 1위로 선정했고, '포브스'는 LG 드럼세탁기를 "어떤 세탁물이든 섬세하게 세탁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타임'은 LG전자를 2024년 인도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혜민 기자